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정신과학교실
김 헌 수 · 민 병 근 · 김 현 실**

= Abstract =

Correlation between Delinquent and their Character Pattern and Family Dynamics*

Kim Hun-Soo, Min Byung-Kun, Kim Hyun-Sil**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Nursing, Asan Medical Center***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and their character, mood state and family dynam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Subjects serv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838 adolescents including 601 juvenile delinquents and 1,237 adolescent students in Korea, sampled from Korean student population and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confined i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using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ir age ranged between 12 and 21. The actual number of cases put into the analysis was 1,696 adolescents including 511 delinquents and 1,185 adolescent students. Data were analysed by IBM PC of Behavioral Science Center at the Korea University, using SA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χ^2 test, simple correl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analysis and LISREL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consistent by parental child rearing patterns tended to affect delinquent behavior among delinquent adolescents. The more were paternal and maternal attitudes arbitrary, restricted, mistrusting their children and punishment-oriented, the higher occurred their children's delinquent behavior. On the other hand, adolescent students were consistently rearing by their parents, their parental attitudes were democratic, flexible, trusting their children and reward-oriented. In comparison of both parents in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ir children was revealed that paternal child rearing pattern was more influential on their children's behaviors than maternal's.

2. The psychological instability of family tended to be contributing to delinquent behav-

* 이 논문은 1991년도 아산 생명과학 연구소의 학술연구조성비의 도움으로 연구되었음

적 환경을 증시하는 사회학적 접근방법이 있다.¹¹⁻¹³

셋째,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증시하는 가족관계 이론이 있다.^{2, 14, 15}

넷째, 인격발달의 왜곡이나 정서적 갈등을 증시하는 정신역동적 접근방법 등이 있다.^{16, 17}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에 관한 많은 문헌에는 상호밀접한 관계의 변인들이 원인변수로 인용되고 있지만 방법론상의 문제점과 조사자의 접근태도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빈번히 모순된 조사결과와 결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비행 및 범죄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상기 지적된 모순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가정환경적요인과 개인내적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청소년 비행을 야기하는지」 하는 가정을 설정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정(hypothesis)을 설정한 연구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다.

우선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증시하여 가정붕괴가 비행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들 중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 또는 정신장애자가 많다는 것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손(사망)보다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의 質의 狀態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⁸

Glueck & Glueck(1950)¹⁹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 예측에 있어 부친의 유순한 훈육방법이나 방임적인 모친의 태도, 부모의 무관심이나 적개심, 그리고 가정내 응집력의 결여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많은 학자들이 모친-자녀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10세 까지는 모친이 중요하고 10-16세 사이에는 부친과 모친의 비중이 비슷하며, 16세 이후에는 부친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²⁰

개인내적요인인 성격 및 정서요인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1, 19, 21, 22}가 있고 자아개념의 손상이나 욕구좌절로 인해 비행행동을 한다는 연구,²³ 아동기의 애정결핍이 비행과 상관성이 있고,^{24, 25} 의존적 욕구충족을 못할 때 공격적으

로 된다는 연구들²⁶⁻²⁸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 양상과 청소년비행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도 있으며 특히 불안·우울정서가 비행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29, 30} 청소년비행과 불안성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견해가 있다. 즉 비행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31, 32}도 있고 반대로 불안성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33, 34}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정신병리적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은 불안수준이 낮지만 신경경적 집단의 청소년들은 불안성향이 높다고 한다.³⁵⁻³⁷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격동기이므로 기분변화가 심하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이며 동시에 주체성을 확립코자 투쟁하면서 많은 정서적 불안정을 느낀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행동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양육형태는 물론 가정의 심리풍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스트레스요인으로 가정역동적 환경요인, 가정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성격양상, 정서상태 및 사회적 학습능력 요인을 변인으로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비행·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정서상태(불안성향)와 가정역동적 환경을 독립변인, 사회적 학습능력 및 성격특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정역동적 환경, 개인내적 특성, 가정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학습능력의 상호관계성이 청소년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 연구문제 1. 비행·범죄청소년과 학생청소년들의 불안성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비행·범죄청소년과 학생청소년들의 성격양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비행·범죄청소년과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역동적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비행·범죄청소년과 학생청소년들의 사회적 학습능력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5.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가정역동적 환경이 청소년비행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추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검토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가정역동적 환경에서 불안성향이 발현하고 성격적 취약성이나 공격충동성 때문에 비행·범죄행동을 할 것이다.

상기가설 도출은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기술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자의 범위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1992년 1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 1,237명과 소년원, 감별소에 재소중인 비행·범죄 청소년 60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령범위는 12세에서 21세 사이에 있는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비비율적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감별소)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4개 학급학생 1,237명을 표집대상 학생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비행·범죄 청소년의 경우 전국 11개 소년원 중 4개 소년원과 2개 감별소 총 6개의 소년원 및 감별소에 재소중인 601명의 비행·범죄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대상자 1,838명(비행청소년:601명, 학생청소년:1,237명)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42명을 제외한 1,69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한 응답률은 92.3%(비행군:85.0%, 학생군:95.8%)이었다.(표 1참조)

(표 1) 조사대상자 분포

	전 체	비 행	학 생
표집대상자	1,838	601	1,237
응답자	1,696	511	1,185
응답률(%)	92.3	85.0	95.8

연구내용영역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영역을 크게 가정역동적 환경, 개인내적특성 및 사회적 학습능력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내용영역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역동적 환경

가정의 심리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친의 양육방식(7개문항), 모친의 양육방식(7개문항), 가정안정도(14개문항), 부모-자녀관계(12개문항), 가족원의 가정만족도(5개문항), 가족원간의 관계(3개문항) 및 모친의 사회활동(3개문항)인 7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친 및 모친의 양육방식은 각각 다음과 같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7개문항은 부정적 일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 척도로 되어있다.

- 가. 혼육방침(민주적-전제적)
- 나. 혼육유연성(유연-엄격)
- 다. 규율에 대한 규제(자유-구속)
- 라. 자녀신뢰도(신뢰-불신)
- 마. 가정의 개방성(개방-보수)
- 바. 자녀비중도(자녀중심-부모중심)
- 사. 상벌태도(칭찬위주-처벌위주)

2) 가정안정도

가정안정도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14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14개 문항은 부정적 일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척도로 되어있다.

- 가. 가정분위기(온화-냉담) -4문항
- 나. 가정협동(협동-비협동) -1문항
- 다. 가정긴장도(이완-긴장) -2문항
- 라. 의견조화도(조화-부조화) -5문항
- 마. 부부화합도(화합-불화) -1문항
- 바.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일관성-불일관성) -1문항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영역은 다음과 같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12개 문항은 부정적 일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 척도로 되어있다.

가. 자녀의 부모의견 존중도(존중-무시) -2문항
 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존중-무시) -1문항
 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도(헌신-이기)

-1문항

라. 부모의 자녀 접촉도(친밀-소외) -1문항
 마. 자녀의 부모 접촉도(친밀-소외) -1문항
 바. 부모의 자녀 기대도(기대-실망) -2문항
 사. 부친의 자녀 애정진실도(충만-부족) -1문항
 아. 모친의 자녀 애정진실도(충만-부족) -1문항
 자. 부모의 자녀 책임 요구도(책임요구-무관심)

-2문항

4)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5개 문항은 가족원이 가정에 불만족 할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척도로 되어있다.

가. 부친의 가정만족도(만족-불만족)
 나. 모친의 가정만족도(만족-불만족)
 다. 본인의 가정만족도(만족-불만족)
 라. 남성형제의 가정만족도(만족-불만족)
 마. 여성자매의 가정만족도(만족-불만족)

5) 가족원간의 관계

가족원간의 관계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3개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부정적 일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척도로 되어있다.

가. 가족원간의 원만성(원만-불화)
 나. 가정경제(풍요-빈곤)
 다. 가족원의 사회활동도(많음-적음)

6) 모친의 사회활동

모친의 사회활동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3개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부정적 일 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척도로 되어있다.

가. 모친의 사회활동(많음-적음)
 나. 모친의 자녀관심(많음-적음)
 다. 자녀우선도(우선적-무관심)

2. 개인내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영역에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특성이 포함된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청

소년 자신의 연령(11-13, 14-16, 17-19, 20세 이상), 교육수준(국졸, 중학재학, 중학중퇴, 중학졸업, 고교 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및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무교 기타)등이 포함되고, 성격 특성에는 불안성향(20문항), 성격양상(10문항) 및 공격충동(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성향 20문항은 Zung(1971)의 자가평정불안 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를 번안하여 적용하였고, 성격양상의 10개문항은 「이유없이 짜증», 「남과 다툼», 「사소한 일로 싸움», 「아동기 때 물건파괴·주먹싸움», 「쉽게 흥분», 「즉각적행동», 「끈기없어 친구와 쉽게 절교», 「비사교적이고 자기중심적», 「화풀이 해야 시원», 「매사에 자신이 없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격충동 6개문항에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 「학교포기충동», 「보복적 공격충동», 「즉각적 만족충동», 「권위자에 대한 불복충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성격특성은 부정적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4점척도로 되어 있다.

3. 사회적 학습능력

사회적 학습능력 영역에는 10개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조사와 정신의학 적 면담을 통한 측정연구로서 이를 위해 1992년 1월 부터 3월까지 연구자가 직접 소년원, 감별소와 학교를 방문하여 소년원,감별소의 재소기록 및 본 조사를 위한 각종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비행·범죄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우선 조사대상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행·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정역동적 환경,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사회적 학습능력 변인을 독립변인 내지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집단간의 차이와 비행행동에 영향주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원들이 면담 및 설문지법, 기타기록 등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후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거하고 전산코딩 및 입력 등을 한 후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χ^2 검정, 단순상관분석, 주성분분석, 주성분회귀분석 및 경로분석법 등이 적용되었다.

안성향, 사회적 학습능력 및 가정역동적 환경 간의 차이를 분석코자 시도하였다. 특히 이들 주요독립변인 및 매개변인들은 점수화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들간의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각 변인들을 주성분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성분점수를 4점척도 항목에 따라 학생과 비행청소년의 수를 재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비행청소년의 성격양상, 불

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로 볼 때 학생청소년 1,154명 중에서 남성은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행/학생간의 관계

변 인	전 체	비 행	학 생	χ^2	df	p값
성 별						
남	1,100	459 (41.7)	641 (58.3)	194.6	1	.000
녀	560	47 (8.4)	513 (91.6)			
전체	1,660					
연 령						
11-13	205	11 (5.4)	194 (94.6)	329.7	3	.000
14-16	698	120 (17.2)	578 (82.8)			
17-19	626	302 (48.2)	324 (51.8)			
20이상	55	54 (98.2)	1 (1.8)			
전체	1,584					
교 육						
국졸	58	53 (91.4)	5 (8.6)	1080.4	6	.000
중학 재학	315	26 (8.3)	289 (91.7)			
중학 중퇴	167	164 (98.2)	3 (1.8)			
중학 졸업	47	44 (93.6)	3 (6.4)			
고교 재학	608	0 (0.0)	608 (100)			
고교 중퇴	63	62 (98.4)	1 (1.6)			
고교 졸업	11	11 (100)	0 (0.0)			
전 체	1,269					
종 교						
기독교	634	229 (36.1)	405 (63.9)	46.4	6	.000
천주교	190	52 (27.4)	138 (72.6)			
불교	186	56 (30.1)	130 (69.9)			
유교	9	2 (22.2)	7 (77.8)			
천도교	10	0 (0.0)	10 (100)			
무종교	353	59 (16.7)	294 (83.3)			
기타	28	9 (32.1)	19 (67.9)			
전 체	1,410	(2.2)	(1.9)			

641명이었고 여성은 513명이었다. 비행청소년에서는 남성이 459명, 여성이 47명이었다.(표 2참조) 연령별로 보면 학생청소년들은 연령이 비교적 낮고 구분포되어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숫적증가도 의미있게 있었다. ($\chi^2=329.7$, $df=3$, $P=.000$)(표 2참조) 교육수준은 비행청소년에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보다는 중퇴한 경우가 의미있게 높았다. ($\chi^2=1080.4$, $df=6$, $P=.000$)(표 2참조) 청소년들의 종교면에서 볼 때 학생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 보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많이 믿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반면 종교가 없는 경우도 역시 학생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높았다. ($\chi^2=46.4$, $df=6$, $P=.000$)(표 2참조) 비행 및 학생청소년 모두에서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각각 56.3%와 40.4%로 가장 많았다.

2. 주요독립변인군의 주성분분석

연구내용영역에서 이미 기술된 독립 및 매개변인들 즉 가정역동적 환경,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공격충동변인들을 각각 주성분분석을 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한 이유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각 문항군들을 요약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성분분석의 집계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독립변인군의 주성분분석

변인명	문항수	주성분갯수	고유값비율(%)
가정역동적 환경	107		
부친의 양육방식	7	1	49.4
모친의 양육방식	7	1	38.4
가정안정도	14	1	34.8
부모-자녀관계	12	2	44.7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5	1	60.9
가족원간의 관계	3	1	42.3
모친의 사회활동	3	1	37.6
성격특성	36		
불안성향	20	1	46.5
성격양상	10	1	44.3
공격충동	6	1	54.3
사회적 학습능력	10	1	44.3

가정역동적 환경변인에는 부친 및 모친의 양육방

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관계,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친의 사회활동 등 7개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부친의 양육방식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주성분이 총정보량의 49.4%를 설명해 준다. 모친의 양육방식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주성분이 총정보량의 38.4%를 설명해 준다. 그 외 가정안정도는 34.8%, 부모-자녀관계는 44.7%, 가족원의 가정만족도는 60.9%, 가족원간의 관계는 42.3%, 모친의 사회활동은 37.6%를 설명해 준다.

성격특성변인에는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공격충동 등 3개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불안성향 20개 문항 중에 제1주성분이 총정보량의 46.5%를 설명하고 있고, 성격양상은 44.3%, 공격충동은 54.3%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학습능력변인은 10개 문항 중 제1주성분이 총정보량의 44.3%를 설명해 주고 있다.(표 3참조)

이상의 각 변인들의 주성분분석 중에서 각 변인들의 주성분분석과정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고 비중이 높은 공격충동에 대한 과정만 설명하겠다.(표 4참조)

(표 4) 공격충동변인의 주성분분석

공격충동주성분	고유값	누적비율
제 1 주성분	3.257	0.543
제 2 주성분	0.824	0.680
제 3 주성분	0.619	0.783
제 4 주성분	0.469	0.862
제 5 주성분	0.430	0.933
제 6 주성분	0.401	1.000
고 유 벡 터		
물건훔치고 싶은 충동	.358 .720-.043	.288 .495 .151
학교포기충동	.415 .433 .201-.280-.664-.281	
보복적 공격충동	.415-.169-.650	.010-.283 .543
육체적 공격충동	.432-.286-.364	.080 .246-.728
즉각적 만족충동	.400-.350 .529	.631-.141 .132
권위자에대한 불복충동	.423-.243 .348-.657	.391 .232

(표 4)에서는 공격충동에 대한 6개의 주성분과 고유값 및 누적비율을 제시하면서 공격충동에 포함된 6개의 주성분들의 고유벡터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참조)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3. 주성분분석변인별 비행과 학생과의 관계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각 독립 및 매개변인들은 각각 여러개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로 임의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여러변수를 요약하고 주성분분석을 하였다. 이들 주성분분석을 한 변인들을 주성분 점수에 의하여 각 변인들의 4점척도 항목에 따라 비행과 학생 청소년의 수를 재분류하여 두 집단간의

(표 5-1) 주성분변인별 비행/학생과의 관계

주요 변인	전체	비행	학생	χ^2	df	p값
부친의 양육방식						
아주 일관성 있음	658	159 (24.2)	499 (75.8)	20.2	3	.000
다소 일관성 있음	391	134 (34.3)	257 (65.7)			
다소 일관성 없음	278	101 (36.3)	177 (63.7)			
아주 일관성 없음	137	46 (33.6)	91 (66.4)			
전체	1,464	440	1,024			
모친의 양육방식						
아주 일관성 있음	658	179 (27.2)	479 (72.8)	10.9	3	.012
다소 일관성 있음	432	122 (28.2)	310 (71.8)			
다소 일관성 없음	269	94 (34.9)	175 (65.1)			
아주 일관성 없음	129	50 (38.8)	79 (61.2)			
전체	1,488	445	1,043			
부/모친의 양육방식						
아주 일관성 있음	606	159 (26.2)	447 (73.8)	12.7	3	.005
다소 일관성 있음	389	113 (29.1)	276 (71.0)			
다소 일관성 없음	277	102 (36.8)	175 (63.2)			
아주 일관성 없음	94	35 (37.2)	59 (62.8)			
전체	1,366	409	957			
가정안정도						
아주안정	630	145 (23.0)	485 (77.0)	34.8	3	.000
약간안정	308	105 (34.1)	203 (65.9)			
다소불안정	216	81 (37.5)	135 (62.5)			
아주불안정	143	62 (43.4)	81 (56.6)			
전체	1,297	393	904			
부모-자녀관계						
아주원만	674	141 (20.9)	533 (79.1)	53.9	3	.000
다소원만	361	104 (28.8)	257 (71.2)			
다소원만치 않음	252	86 (34.1)	166 (65.9)			
아주원만치 않음	162	78 (48.1)	84 (51.8)			
전체	1,449	409	1,040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아주만족	544	160 (29.4)	384 (70.6)	20.0	3	.000
다소만족	337	112 (33.2)	225 (66.8)			
다소불만	157	69 (44.0)	88 (56.0)			
아주불만	109	51 (46.8)	58 (53.2)			
전체	1,147	392	755			
가족원간의 관계						
아주좋음	633	141 (22.3)	492 (77.7)	74.8	3	.000
다소좋음	468	131 (28.0)	337 (72.0)			
다소불화	363	117 (32.2)	246 (67.8)			
아주불화	149	86 (57.7)	63 (42.3)			
전체	1,613	475	1,138			
모친의 사회활동						
아주적음	555	163 (29.4)	392 (70.6)	8.4	3	.039
다소적음	416	156 (37.5)	260 (62.5)			
다소많음	282	96 (34.0)	186 (66.0)			
아주많음	136	39 (28.7)	97 (71.3)			
전체	1,389	454	935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성분분석변인들의 소
항목은 재조정하였다.(표 5-1 및 표 5-2참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는 부친, 모친 각각 및 양친의 총체적 양육방식이
일관성이 없었다. 반면 학생청소년에서는 부친, 모
친 각각 및 양친의 총체적 양육방식이 대체로 일관
성이 있었다.(부친 ; $\chi^2=20.2$, $df=3$, $p=.000$, 모친 ;
 $\chi^2=10.9$, $df=3$, $p=.012$, 양친 ; $\chi^2=12.7$, $df=3$, $p=$

.005)(표 5-1참조)

특히 부친과 모친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부친의 양육방식이 모친보다
청소년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부친의
일관성 없는 자녀 양육태도는 모친의 양육태도
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비행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5-2) 주성분변인별 비행/학생과의 관계

주 요 변 인	전 체	비 행	학 생	χ^2	df	p값
총체적가정의 심리풍토						
아주 좋음	687	156 (22.7)	531 (77.3)	41.9	3	.000
약간 좋음	736	231 (31.4)	505 (68.6)			
약간 나쁨	194	87 (44.8)	107 (55.1)			
아주 나쁨	56	23 (41.1)	33 (58.9)			
전 체	1,673	497	1,176			
불안성향						
전혀 없음	680	141 (20.7)	539 (79.3)	40.0	3	.000
별로 없음	339	119 (35.1)	220 (64.9)			
때로 불안	255	94 (36.9)	161 (63.1)			
아주 불안	120	44 (36.7)	76 (63.3)			
전 체	1,394	398	996			
공격충동						
전혀 없음	673	129 (19.2)	544 (80.8)	68.0	3	.000
별로 없음	402	128 (31.8)	274 (68.2)			
때로 있음	263	108 (41.1)	155 (58.9)			
많이 있음	113	52 (46.0)	61 (54.0)			
전 체	1,451	417	1,034			
성격양상						
아주 좋음	690	129 (18.7)	561 (81.3)	94.3	3	.000
다소 좋음	369	126 (34.1)	243 (65.8)			
다소 경직	240	106 (44.2)	134 (55.8)			
아주 경직	143	71 (49.6)	72 (50.3)			
전 체	1,442	432	1,010			
사회적 학습능력						
아주 많음	659	133 (20.2)	526 (79.8)	59.0	3	.000
약간 있음	485	178 (36.7)	307 (63.3)			
별로 없음	282	113 (40.1)	169 (59.9)			
전혀 없음	115	46 (40.0)	69 (60.0)			
전 체	1,541	470	1,071			

가정안정도면에서 비행청소년의 가정안정도는 아
주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학생청소년에서는 안정된
가정환경을 보여주었다.($\chi^2=34.8$, $df=3$, $p=.000$)

(표 5-1참조)

부모-자녀관계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
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학생청소년들에서는 아주 원

만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chi^2=53.9, df=3, p=.000$)
 〈표 5-1참조〉

가족원의 가정만족도에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가정에 불만이 많았고, 반면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대체로 가정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hi^2=20.0, df=3, p=.000$)〈표 5-1참조〉

가족원간의 관계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은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가족원의 사회활동도가 적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은 가족원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경제도 풍요롭고 가족원의 사회활동이 많았다. ($\chi^2=74.8, df=3, p=.000$)〈표 5-1참조〉

모친의 사회활동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모친은 사회활동이 적은 반면, 학생청소년들의 모친은 비교적 사회활동이 많거나 적은 성향을 나타냈다. ($\chi^2=8.4, df=3, p=.039$)〈표 5-1참조〉

전체적인 가정의 심리풍토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풍토는 대체로 나빴고, 학생청소년들에서는 가정의 심리풍토가 좋은 편이었다. ($\chi^2=41.9, df=3, p=.000$)〈표 5-2참조〉

성격특성면에서 비행청소년에서는 불안성향이 높은 반면 학생청소년에서는 불안성향이 낮았다. ($\chi^2=40.0, df=3, p=.000$)〈표 5-2참조〉 공격충동성에

서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충동성이 높은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공격충동성이 낮았다. ($\chi^2=68.0, df=3, p=.000$) 〈표 5-2참조〉 성격양상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미숙하고 자아기능의 취약성이 높은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들 보다 성숙하고 융통성 있는 면을 보여 주었다. ($\chi^2=94.3, df=3, p=.000$)〈표 5-2참조〉 사회적 학습능력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학습능력이 적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사회학습능력이 좋은 편이었다. ($\chi^2=59.0, df=3, p=.000$)〈표 5-2참조〉

4. 공격충동과 비행행동간의 관계

앞에서 「청소년들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성격적 취약성이나 공격충동성이 발현하게 되어 비행이나 공격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행(공격)행동을 설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에 심한 비행행동을 한 적이 있다」와 「15세전에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4점척도의 두 문항을 교차분석표로 살펴본 후에 관찰치 별로 각각 합산한 결과 2≤비행행동≤8점의 비행행동점수값을 산출하여 7개의 비행행동유형으로 나누었다.〈표 6참조〉

〈표 6〉 비행행동유형

청소년기에 심각한 비행행동	15세전에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전혀없음	별로없음	때때로받았음	자주받았음	
전혀없음	788(96.3) (77.3)	17 (2.1) (25.0)	12 (1.5) (19.7)	1 (0.1) (2.5)	818 (68.8)
별로없음	104 (72.2) (10.2)	20 (13.9) (29.4)	13 (9.0) (21.3)	7 (4.9) (17.5)	144 (12.1)
때때로 했음	83 (60.6) (8.1)	22 (16.1) (32.4)	23 (16.8) (37.7)	9 (6.6) (22.5)	137 (11.5)
자주 했음	45 (50.0) (4.4)	9 (10.0) (13.2)	13 (14.4) (21.3)	23 (25.6) (57.5)	90 (7.6)
전 체	1,020 (85.8)	68 (5.7)	61 (5.1)	40 (3.4)	1,189
χ^2 검 정	$\chi^2=341.1$	df=9	p값=.000		

7개의 비행행동을 유형별로 보던 다음과 같다. 2점 비행행동은 「비행전혀없음+위법처벌없음」, 3점

비행행동은 「비행별로없음+위법처벌없음」과 「비행전혀없음+위법처벌별로없음」, 4점비행행동은 「비행

때때로했음+위법처벌없음」과 「비행별로없음+위법처벌별로없음」과 「비행전혀없음+위법처벌때때로받음」, 5점 비행행동은 「비행자주했음+위법처벌없음」과 「비행때때로했음」+「위법처벌별로없음」과 「비행별로없음+위법처벌때때로받음」과 「비행전혀없음+위법처벌자주받음」, 6점 비행행동은 「비행자주했음+위법처벌별로받지않음」과 「비행때때로했음+위법처벌때때로받음」과 「비행별로없음+위법처벌자주받음」, 7점 비행행동은 「비행자주했음+위법처벌때때로받음」과 「비행때때로했음+위법처벌자주받음」, 8점 비행행동은 「비행자주했음+위법처벌자주받음」으로 분류되었다.($\chi^2=341.1$, $df=9$, $p=.000$)〈표 6참조〉

7개의 비행행동유형별 비행 및 학생간의 관계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비행점수가 높은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학생청소년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chi^2=588.6$, $df=6$, $p=.000$)〈표 7참조〉

〈표 7〉 비행행동과 비행/학생과의 관계

비행행동점수*	전 체	비행	학생	χ^2	df	p값
2	784	52(6.6)	732(93.4)			
3	120	57(47.5)	63(52.5)			
4	115	89(77.4)	26(22.6)			
5	81	61(75.3)	20(24.7)	588.6	6	.000
6	39	35(89.7)	4(10.3)			
7	22	19(86.4)	3(13.6)			
8	23	22(95.7)	1(4.3)			
전 체	1,184	335	849			

*〈표 6〉에서 설명

이와 같이 분류된 행동유형과 공격충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모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공격충동은 6개의 상관성이 높은 변인으로 임의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6개의 공격충동변인을 주성분분석에 의해 변인을 요약하고 주성분점수화에 의한 주성분회귀분석을 통해 충동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공격충동과 비행(공격)행동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결정계수(R^2)=.071)〈표 8참조〉

〈표 8〉 공격충동과 비행(공격)행동간의 주성분회귀분석

	분산분석표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값	p값
회귀모형	2	54.210	27.105	14.019	.000
오 차	365	705.692	1.933		
전 체	367	759.902			
회귀모형:비행행동=4.284+0.204* 제1주성분(공격충동) 결정계수(R^2) = .071					
회귀모형의 보수추정표					
변 인	자유도	추정값	표준오차	t값	p값
절 편 항	1	4.284	0.082	52.287	.000
제1주성분	1	0.204	0.040	5.103	.000
제2주성분	1	0.099	0.070	1.406	.160

본 연구는 설문지법 조사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두 변인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공격충동이 비행(공격)행동에 영향을 준 것인지, 비행행동을 한 후 다시 공격충동이 생겨 비행(공격)행동에 영향을 준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전자의 관계를 가정하고 결정계수를 산출해 본 결과 결정계수(R^2)=.071의 관계를 보였다. 즉 공격충동이 비행(공격)행동의 변량에 7.1%를 결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행행동변량의 대부분인 92.9%는 공격충동 이외의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정역동적 환경, 성격특성 및 사회적 학습능력 변인과 공격충동 및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표 9〉 및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역동적 환경변인들 중에서 공격충동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들은 부친의 양육방식($p=.000$), 모친의 양육방식($p=.000$), 가정안정도($p=.000$), 부모-자녀관계($p=.000$), 가족원의 가정만족도($p=.000$), 가족원간의 관계($p=.000$) 및 모친의 사회활동($p=.062$) 등이었고, 총체적인 가정심리풍토와 공격충동과는 상관성이 높았다.($p=.000$)〈표 10참조〉 비행행동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들은 모친의 사회활동($p=.074$)이었다.〈표 9참조〉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성격특성과 공격충동 및 비행행동 간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다. 불안성향은 공격충동과 상관성이 높았다. ($p=.000$)〈표 10참조〉 성격양상에서는 공격충동 ($p=.000$)과 비행행동($p=.000$) 모두와 상관성이 높았다.〈표 10참조〉 사회적 학습능력은 공격충동($p=.000$)과 비행행동($p=.004$) 모두와 상관성이 높았다. 〈표 10참조〉

이 있으며, 이들 변인사이에 여러가지 매개변인이 개입되어 있을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변인들이 공격충동과 비행행동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에는 부분상관계수, 준부분상관계수, 회귀분석법, 경로분석 및 공변량분석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 전체가 명확한 LISREL 모형 중에서 경로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격충동과 비행행동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역동적

6. 공격충동과 비행(공격)행동간의 매개변인 앞에서 공격충동과 비행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관

〈표 9〉 가정역동적 환경변인들과 공격충동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공격충동			비행행동		
	상관계수	p값	명수	상관계수	p값	명수
부친의 양육방식						
비행	0.293	.000	368	0.030	.649	227
학생	0.256	.000	900	-0.127	.224	94
전체	0.279	.000	1,273	0.002	.970	322
모친의 양육방식						
비행	0.253	.000	375	-0.006	.925	232
학생	0.245	.000	924	-0.082	.419	100
전체	0.261	.000	1,303	-0.054	.323	333
가정안정도						
비행	0.347	.000	330	0.116	.098	206
학생	0.302	.000	795	0.020	.852	88
전체	0.340	.000	1,129	0.087	.134	295
부모-자녀관계						
비행	0.277	.000	349	0.077	.266	213
학생	0.262	.000	916	0.093	.375	94
전체	0.300	.000	1,270	0.069	.229	308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비행	0.327	.000	330	0.117	.113	186
학생	0.347	.000	676	0.032	.783	76
전체	0.357	.000	1,011	0.087	.161	263
가족원간의 관계						
비행	0.286	.000	398	-0.027	.676	247
학생	0.274	.000	1,003	0.177	.071	105
전체	0.310	.000	1,406	0.062	.245	353
모친의 사회활동						
비행	-0.009	.867	383	0.094	.151	236
학생	0.079	.024	828	0.060	.561	95
전체	0.062	.031	1,212	0.098	.074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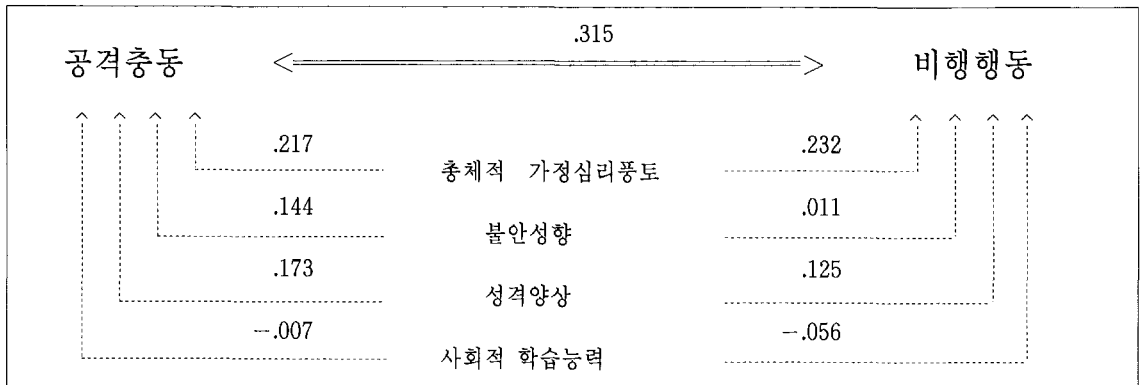
〈표 10〉 주요매개변인들과 공격충동 및 비행행동의 상관관계

주요매개변인	공격충동			비행행동		
	상관계수	p값	명수	상관계수	p값	명수
총체적 가정심리풍토						
비행	0.353	.000	412	0.071	.263	254
학생	0.342	.000	1,029	0.007	.941	112
전체	0.371	.000	1,446	0.055	.291	367
불안성향						
비행	0.473	.000	374	0.157	.018	227
학생	0.552	.000	964	0.102	.311	100
전체	0.543	.000	1,343	0.057	.304	328
성격양상						
비행	0.581	.000	348	0.224	.001	220
학생	0.524	.000	894	0.640	.000	101
전체	0.572	.000	1,247	0.305	.000	322
사회적 학습능력						
비행	0.014	.784	394	0.078	.220	250
학생	0.139	.000	953	0.241	.011	111
전체	0.145	.000	1,351	0.150	.004	362

〈표 11〉 매개변인을 고려한 공격충동과 비행행동간의 관계 (LISREL)

주요매개변인	공격충동			비행행동		
	계수	표준오차	t값	계수	표준오차	t값
총체적 가정심리풍토	.217	.079	2.74	.232	.146	1.59
불안성향	.144	.037	3.89	.011	.069	.16
성격양상	.173	.029	5.99	.125	.054	2.34
사회적 학습능력	-.007	.040	-.17	-.056	.074	-.75

* 관찰치=277



〈도해 1〉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공격충동과 비행행동에 관한 경로분석도

환경의 총체적 가정심리풍토, 성격특성 및 사회적 지지도 변인들을 중요변인으로 선택했다. 이 변인들의 분석결과는 <표 11> 및 <도해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및 도해 1 참조>. 공격충동에는 성격양상 ($t=5.99$), 불안성향($t=3.89$), 총체적 가정심리풍토 ($t=2.74$)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학습능력은 공격충동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성격양상이 경직(취약)될 수록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총체적 가정의 심리풍토가 나쁠수록 청소년의 공격충동에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 반면 비행행동에는 성격양상($t=2.34$), 총체적 가정의 심리풍토($t=1.59$), 불안성향($t=.16$)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학습능력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성격이 경직되거나 취약할 수록 가정의 심리풍토가 나쁠수록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자녀의 비행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공격충동과 비행행동에는 성격양상이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IV. 고 찰

비행의 원인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도 기술했듯이 가정역동적 환경, 정서상태(불안성향), 성격특성 및 사회적 학습능력(사회적능력) 요인을 선정하여 비행의 원인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가정역동적 환경요인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여러가지 가정의 심리적 풍토가 있다.

Cull & Hardy(1976)³⁸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 자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데는 부모 양육방식의 부적당성, 자녀통제수단으로 언어적 또는 신체적 처벌방법사용 및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행동을 조장시키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육방식 이외에 가정의 심리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부모-자녀관계,³⁹ 부부간의 관계,⁴⁰ 가족원간의 화합도⁴¹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부친 및 모친은 양육방식에 일관성이 없었다. 부친은 아주 전제적이고 엄격한 훈육방식과 자녀를 불신하며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하였고, 모친 역시 전제적이고 자녀를 불

신하며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의 부친 및 모친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친·모친 모두 민주적이고 유연하며, 자녀를 신뢰하고 칭찬위주의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 부친과 모친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자녀의 비행행동에 모두 영향을 주지만 부친이 모친보다 청소년자녀들의 행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김현수(1980)¹가 3,602명의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학생과 비가출학생 간의 부친·모친의 양육방식 간의 차이에서 부친이 모친 보다 청소년가출에 더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본 조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아발달과 성격형성에 모친-자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42, 43} 물론 자녀의 성격발달에 모친·부친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모친-자녀관계에 더 관심이 있어왔고, 부친-자녀관계가 자녀의 성격발달이나 성장 후 비행 및 범죄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44}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친의 영향력이 모친 못지 않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이런 연구결과에서도 본 조사결과와 부친의 중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비행청소년 가정의 가정안정도는 아주 불안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가정분위기가 냉담하고 불화가 잦고 긴장되며 가족원간의 의견조화도 잘 안되고 부친-모친의 부부화합도도 나쁘다. 반면 학생청소년의 가정안정도는 안정성을 보여주어 가정분위기가 온화하고 가족원간의 의견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부친-모친의 부부화합도 원만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Dentler & Monroe(1961)⁴¹, Slocum & Stone(1963)³⁹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가족원간의 비협동심 및 부조화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상관이 높음을 강조하여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즉 부모들이 자녀의견을 무시하고 애정도 적고 자녀에게 헌신적이지 않으며 자녀와의 접촉도 적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았다. 비행청소년 자신들도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피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중시하고 애정을 갖고 자주 자녀들과 접촉을 하며 헌신적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았으며, 학생들 자신들도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와 친밀하게 접촉을 갖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가족원의 가정만족도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부친·모친·남성형제들 모두 가정에 불만을 나타냈고, 학생청소년의 가정에서는 모두 가정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가정역동적 환경변인 모두들 합하여 총체적 가정의 심리풍토척도변인을 정했었다. 전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은 심리풍토가 대체로 나빴고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은 비교적 좋은 심리풍토의 성향을 나타냈다.

연구내용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성격특성면에 정서상태(불안성향), 공격충동성 및 성격양상 등을 포함시켰다. 과거로 부터 청소년에게서 불안 및 우울성향이 비행행동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왔다.⁴⁶⁻⁴⁹

불안성향과 우울성향 간의 관계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명백한 관련성은 있다.⁵⁰⁻⁵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불안성향만을 조사하였으나 우울성향과 함께 고려하여 불안과 우울성향 간의 관계성과 이들 두 성향이 청소년 비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싶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 보다 불안성향이 의미있게 높았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충동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청소년기는 파괴충동이나 성적충동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 비행행동은 공격충동이 있어야 되고, 충동이 생긴 후 다른 매개요인들이 부가하여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공격충동변인을 선정하였고, 또한 매개변인을 선정하였었다. 물론 본 연구자료가 설문지 조사연구자료이므로 공격충동과 비행행동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격충동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 것인지, 비행행동 후에 공격충동이 더 야기되어 다시 비행행동을 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전자를 가정하고 주성분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정계수(R^2)=.071의 관계를

보였다. 즉 공격충동이 비행행동 변량의 7.1%를 결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행행동변량의 대부분인 92.9%는 공격충동 이외의 다른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 보다 공격충동이 높았다. 다시 말해 물건훔치고 싶은 충동·학업포기충동·보복적공격충동·육체적공격충동·즉각적만족충동 및 권위자에 대한 불복충동 등이 비행청소년이 더 많았다.

성격양상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미숙하고 자아기능의 취약성이 높은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 보다 좀 더 성숙하고 자아기능의 원만성을 보여주었다. Genshaft(1980)⁵⁵는 소년원에 수감중인 57명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에 따라 다면성 인성검사(MMPI)를 실시하여 두 가지 형의 성격양상으로 분류하였다. 즉 갈등적이고 자아기능이 약한 유형과 불안이나 신경증적 증상이 없는 전통적인 정신병질적인 유형으로 나누었다. Genshaft(1980)⁵⁵의 조사결과와 본 조사결과에서 비행청소년의 성격양상 중 자아기능의 취약성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사회적 학습능력)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회적 학습능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학습능력도 좋은 편이었다. 이런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는 많다. Gardner et al(1977)⁵⁶과 Kumchy & Sayer(1980)⁵⁷는 비행청소년이 정상청소년 보다 학습능력에 어려움이 많고 학습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가정의 심리풍토,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사회적 학습능력 등의 매개변인들 중에서 성격양상이 청소년들의 공격충동과 비행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청소년자신의 성격양상이 경직되거나 자아기능이 취약할 때 공격충동 및 비행(공격)행동이 쉽게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비행과 가정역동적 환경, 정서상태(불안성향) 및 성격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공격충동이 행동화하는데 작용하는 매개요

인을 알아 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1992년 1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1,237명과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범죄청소년 601명인 총 1,83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제분석에 사용된 경우는 1,696명이었다. 연령범위는 12세에서 21세 사이에 있는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의 가정역동적 환경, 개인의 성격특성(정서상태, 성격양상, 공격충동) 및 사회적 학습능력등을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으로 하고 비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과정에서 SAS프로그램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의 IBM컴퓨터에 걸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통계방법은 χ^2 검정, 단순상관분석(Simple Correlation),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Analysis) 및 경로분석법(LISREL, Path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들의 부친 및 모친의 양육방식에 일관성이 없었다. 즉 부친은 아주 전체적이고 엄격한 훈육방침과 자녀를 불신하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모친 역시 전체적이고 자녀를 불신하며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취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의 부친 및 모친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부친 및 모친 모두 민주적이고 유연하며, 자녀를 신뢰하고 칭찬위주의 양육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친이 모친보다 청소년자녀들의 행동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다.

2.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의 안정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즉 가정분위가 냉담하고 불화가 잦고 긴장되어 있으며 가족원간의 의견조화도 잘 안되고, 부친-모친의 부부화합도도 나빴다. 더우기 가족원들의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반면 학생청소년의 가정안정성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다시말해 가정분위기가 온화하고 가족원간의 의견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부친-모친의 부부화합도 원만했다. 특히 가족원들의 가정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3.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즉 부모들이 자녀의견을 무시하고 애정도 적고 자녀에 헌신적이지 않으며 자녀와의 접촉도 적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았다. 비행청소년 자신들도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피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중시하고 애정을 갖고 자주 자녀들과 접촉을 하며 헌신적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았다. 학생청소년 자신들도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와 친밀하게 접촉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4.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의 전반적인 심리풍토는 경직되어 있고,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의 심리풍토는 유연한 성향을 보여 주었다.

5.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에 비해 불안성향이 높았다.

6. 비행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은 공격충동성이 높았고, 성격양상에 있어서도 미숙하고 자아기능의 취약성이 높은 반면 학생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 보다 좀 더 성숙되고 자아기능의 원만성을 보여 주었다.

7. 청소년들의 사회성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회적 학습능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사회적 학습능력도 좋은 편이었다.

8. 총체적 가정의 심리풍토, 불안성향, 성격양상 및 사회적 학습능력 등의 매개변인들 중에서 성격양상이 청소년들의 공격충동과 비행(공격)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자신들의 성격양상이 경직되거나 취약할 때 공격충동성 및 비행(공격)행동이 쉽게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심단어 ; 청소년비행·성격양상·가족역동

참고문헌

1. 김 현수: 청소년 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 한 국학생청소년의 가출충동 및 행동을 중심으로 - 한

- 국의과학 1980;12(3):203-238.
2. Farrington DP, Biron L, LeBlanc M: Personality and delinquency in London and Montreal. In JC Gunn, DP Farrington(eds.), *Abnormal offenders: Delinquen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ley, New York, 1982.
 3. 나 철·이 길홍·민 병근: 학생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유형간의 관계 분석. *중앙의대지* 1984;9(4):573-582.
 4. 국무총리기획조정실: 청소년 백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 1984; 1-150, 서울.
 5.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4, 1987;1-2.
 6. 민 병근·최 상진·이 길홍: 오늘의 청소년 -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청소년 문제 연구소, 서울, 1978;1-80.
 7. Kretchmer E: *Physique and character*.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London, 1936.
 8. Sheldon WH, Stevens SS, Tucker WB: *The varieties of human physique*. Harper and Bros, New York, 1940.
 9. Hutchings F, Mednick SA: Biological and adoptive fathers of male criminal adoptees. In *major issues in juvenile delinquency*. WHO, Copenhagen, 1974;47-61.
 10. Crowe RR: The adopted offspring of women criminal offenders. A study of their arrest records. *Arch Gen Psychiatry* 1982;27:600.
 11. Hewitt L, Jenkins RC: *Fundamental patterns of maladjustment. The dynamics of their origin*. Springfield, Illinois, 1946.
 12. Lewis H: *Deprived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54.
 13. Robins L: *Deviant children grow up: A sociological and psychiatric study of sociopathic personality*. Williams, Wilkins, Baltimore, 1966.
 14. Wolberg L, Kildahl J: *The dynamics of personality*. Grune & Stratton, New York, 1970.
 15. Wolman BB: *Manual of child psychopathology*. McGraw-Hill, New York, 1971.
 16. Freud S: Three essay on the theory of sexuality. In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 Freud, Vol. VII*, Hogarth Press, London, 1905; 173-206.
 17. 박 두병·이 길홍·민 병근: 학생청소년의 음주양상과 공격성과의 상호관계. *중앙의대지* 1984;9(4):583-603.
 18. Stierlin H: A family perspective on adolescent run-aways. *Arch Gen Psychiatry* 1973;29:56.
 19. Glueck S, Glueck E: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ommon Wealth Fund, New York, 1950.
 20. Alcorn BD: Some psychological effects of paternal deprivation upon children from 10 to 16.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962;35:337-345.
 21. Conger JJ, Miller WC, Walsmith CR: Antecedents of delinquency, personality, social class and intelligence. In PH Mussen, JJ Conger, J Kagen (eds; *Readings i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Harper, Row, New York, 1965.
 22. West DJ, Farrington DP: *Who becomes delinquent?* Heinemann Educational, London, 1973.
 23. Gold M, Mann D: Delinquency as defense. *Am J Orthopsychiatry* 1972;42:463-479.
 24. Saul L: Personal and social psychopathology and the primary prevention of violence. *Am J Psychiatry* 1972;18(6):215-233.
 25. Chyou Niem T, Collard R: Parental discipline of aggression behaviors in 4 year old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2;7:95-96.
 26. Kagan J: Socialization of aggression and the perception of parents in fantasy. *Child Development* 1958; 29: 311-320.
 27. Hamilton M: A Rating scale for depression.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60;23:56.
 28. Kalogeriakis M: *Homicide in adolescents: Fantasy and deed*.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hicago, 1972.
 29. Lefeber JA: *The delinquent's self-concep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65.
 30. Novotny ES, Burnstein M: Public school adjustment of delinquent boys after release from a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74;3:49-60.
 31. Greenacre P: Conscience in the psychopath. *Am J Orthopsychiatry* 1945;15:495-509.
 32. Spitz RA: Possible infantile precursors of psychopathy. *Am J Orthopsychiatry* 1950;20:240-248.
 33. Costello C, Comrey A: Scales for measuring depression and anxiety. *J Psychol* 1967;66:303-313.
 34. Zung WWK: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971;12:371-379.
 35. Quay HC: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delinquent boys as inferred from the factor analysis of case history data. *Child Development* 1964;35:479-484.
 36. Jenkins RL: *Diagnosis, dynamics and treatment in*

- child psychiatry. *Psychiatric Research Reports* 1964;18:91-120.
37. Jenkins RL: Psychiatric syndromes in children and their relation to family background. *Am J Orthopsychiatry* 1966;36:450-457.
 38. Cull JG, Hardy RE: Problems of runaway youth.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linois, 1976;3-4.
 39. Slocum W, Stone CL: Family, culture, patterns and delinquent type behavior.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63;25:202-208.
 40. Johnson SM, Lobitz GK: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parents as related to observed child deviance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iatry* 1974;2:192-207.
 41. Dentler RA, Monroe LJ: Social correlates of early adolescent thef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1;26:733-743.
 42. Haller BL: Some factor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psychopaths on parole from a State Hospital. *Smith College Studies of Social Work* 1942;13:193-194.
 43. Beres D, Obers S: The effects of extreme deprivation in infancy on psychic structure in adolescence. *Psychoanal Stud Child* 1950;5:121-140.
 44. Bowlby J, Ainsworth M, Boston M, Rosenbluth D: The effects of mother-child separation. A follow-up study. *Brit J Med Psychol* 1956; 29:211-247.
 45. Rose G, Marshall TF: *Counselling and school social work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4;80.
 46. Lira FT, White MJ, Finch Jr. AJ: Anxiety and mood states in 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41:532-536.
 47. Kashani JH, Manning GW, McKnew DH et al: Depressi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s. *Psychiatry Research* 1980;3:185-191.
 48. Chiles JA, Miller ML, Cox GB: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 Gen Psychiatry* 1980;37:1179-1184.
 49. Kashani JH, Henrichs TF, Reid JC, Huff C: Depression in diagnostic subtypes of delinquent boys. *Adolescence* 1982;68:943-949.
 50. Hershberg SG, Carlson GA, Cantwell DP et al: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n psychiatrically disrupted children. *J Clin Psychiatry* 1982; 43: 358-361.
 51. Kolvin I, Berney TP, Bhate SR: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of depression in school phobia. *Br J Psychiatry* 1984;145:347-357.
 52. Geller B, Chestnut EC, Miller MD et al: Preliminary data on DSM-III associated feature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985;142:643-644.
 53. Bernstein GA, Garfinkel BD: School phobia: the overlap of affective an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86; 25:235-241.
 54. Strauss CC, Last CG, Hersen M et al: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nxiety disorders. *J Abnorm Child Psychol* 1988;16:57-68.
 55. Genshaft JI: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delinquent subtyp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80;8:279-283.
 56. Gardner DC, Warren SA, Gardner PL: Locus of control and law knowledge: Comparison of normal, retarded, and learning disabled adolescents. *Adolescence* 1977;12:1-12.
 57. Kumchy CIG, Sayer LA: Locus of control in a delinquent adolescent pop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0;46:1307-1310.